

월간

공군



제536호 02

- 04 **기획**
국방 린 6시그마, 공군 6년 연속 1위 영예



- 14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E-737(PEACE EYE)



- 10 **특집 I**
책 읽는 게 '좋은 공군'



- 16 **Aero Detail**
비운의 명 항공기 II



- 12 **특집 II**
강설·한파에도 빈틈없는 영공방위태세 유지

- 22 **박물관에서 본 세계 공군**
150대의 항공기가 간직한
이스라엘 공군의 역사

표 지(앞) 정월대보름에 블랙이글스 연을 날리는 하늘이 프렌즈 (상병 황원진)

발 행 일 자 2023년 2월 1일(통권 제536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상화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이다현

전 자 도 서 관 www.afzine.co.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3010018)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26	내 옆의 공군인 2022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김예성 중위	42	시와 비행하다 0.00
		44	트렌드가 보인다 꼭! 집어주는 슬기로운 공연관람
		46	생각하는 그림 살아진 하루에도 찾아온 행운
30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48	공군인의 편지 어린 시절, 우리 가족에게 온 어여쁜 축복에게 (교육사령부 보급대대 상병 최진민)
36	슬기로운 장병생활 배부르게 먹지 말자	49	책 읽는 공군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 (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상병 이태규)
38	한 달, 한 권 나를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세계 “아무튼, 시리즈”	50	토닥토닥 내가 산 인생만이 나의 인생이다
40	영화로운 나날 「아바타: 물의 길」 앞으로도 다시 없을 압도적인 비주얼의 체험	51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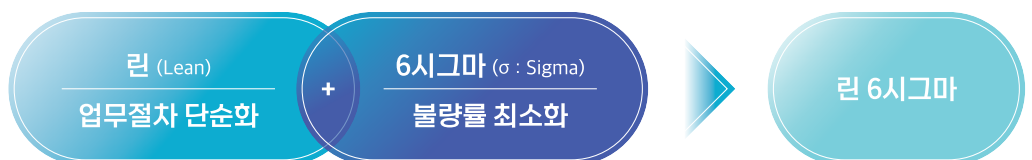
공군



국방 린 6시그마, 공군 6년 연속 1위 영예

국방 린 6시그마(DelSSP: Defense Lean Six Sigma Project, 델스피)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의 약어로, 군 내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이거나 반복적인 문제 즉, 과제를 도출해 논리적·과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방예산 절감, 프로세스 개선 등 혁신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조직문화 정착을 이뤄내 군의 궁극적 목표인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방경영혁신사업이다. 린 6시그마(Lean 6Sigma)를 쉽게 설명하자면 업무 절차·공정 중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해 단순화하는 린(Lean)과 품질불량률을 백만 개당 불량품 3.4개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6시그마(6Sigma)를 합친 것으로, 논리적인 문제해결 과정과 과학적인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해서 불분명한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찾는 선진 경영혁신기법이다.



린 6시그마 개념을 설명하는 그림

이미 검증된 선진경영기법을 군 특성에 맞게 도입한 ‘국방 린 6시그마’의 수행 절차는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임무현장에서 실무·관리자가 고비용·비효율의 문제를 인식한다.

2단계: 기존의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방안을 떠올린다.

3단계: 논리적 문제해결 과정과 다양한 과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수치로써 그 효과를 검증한다.

이때, 각 군 본부와 국방부 심사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것이 ‘국방 린 6시그마 우수과제’로 꼽힌다.

국방경영혁신은 2007년부터 국방부 장관 지시로 각 군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다가 2012년부터 전군으로 확대됐다. 전군으로 확대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동안의 최우수과제들이 가져온 예산 절감효과는 약 169.51억 원(연평균 15.41억 원)이다. 최우수로 선발되지 않은 다른 우수과제들과 원료 과제들까지 합친다면 그 예산 절감효과는 참으로 굉장할 것이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공·육·해군,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제출된 과제 중 과제의 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매년 우수과제를 선발해 시상해왔다. 이 국방부 심사에서 공군의 과제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으로 국방부 최우수과제에 선정됐다. 이로써 공군은 2012년부터 총 7번이나 최우수과제에 선발됐다. 특히, 2022년에는 공군이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석권했다. 공군이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비결은 무엇일까?

먼저, 공군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한 공군 장병과 군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군 핵심가치는 총 4가지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정과 용기로 일선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는 ‘도전’, 국가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며, 희생하고 봉사하는 ‘헌신’, 풍부한 지식·경험·기술과 다양한 관련 자격 취득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실현하는 ‘전문성’,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화합하고 단결하는 ‘팀워크’로 이뤄져 있다.

다음으로, ‘더 좋은 공군’을 추구하는 조직문화이다. 공군은 국가와 조직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소통이 활발한 깨어있는 조직,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조직, 위기 시 더 강해지는 단합된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경영혁신의 중요성에 공감해 ‘경영혁신담당’ 편제를 만들어낸 조직 차원의 노력이다. 국방경영혁신 사업을 담당하는 ‘경영혁신담당’ 편제가 있는 곳은 공군이 유일하다. 공군은 2015년부터 전문가를 채용해, 공군본부에서 모든 과제의 과제선정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결국, 공군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는 공군인 개인의 노력과 공군의 선진적인 조직문화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국방 린 6시그마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공군 국방 린 6시그마 전문가, 하기룡 사무관을 인터뷰했다.

국방 린 6시그마의 역사, 2022년 최우수과제, 과제수행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하기룡 사무관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군수기획과 경영혁신담당(2016년~현재)

국방 린 6시그마 과제 5건 이상 직접 참여 및 지도 8년차

〈주요 보유 자격〉

린 6시그마 최상위 자격인 MBB(Master Black Belt)

재무성과분석자격인 FEA(Financil Effect Analyst)

그 외 코딩교육지도사, 국방빅데이터전문가 자격인 BDS(Big Data Specialist) 등

Q.1

‘국방 린 6시그마
명예의 전당’이란?

A_ 국방부에서 국방·군사 분야의 경영혁신사업 추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국방 린 6시그마 우수과제 수행팀을 매년 선정합니다. 명예의 전당은 그들의 명예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에 개설·설치된 전시관입니다. 그들의 과제와 예산 절감 효과, 팀원들의 사진과 소속, 계급, 성명이 전시됩니다. 명예의 전당 등록 대상자는 국방 린 6시그마 사업 및 과제수행 결과를 평가한 다음 ‘국방 린 6시그마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과제성과를 평가한 12년 중 7년을 공군이 1위를 했기에 국방부 명예의 전당 60%는 공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동일인물이 2회 이상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것도 공군이 유일하며, 단 2명뿐입니다. 국방부처럼 공군본부에도 ‘명예의 전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군본부에 설치된 '명예의 전당'

Q.2

국방 린 6시그마의
역사는?

A_ 국방부가 2010년에 군수경영혁신 활동을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으로 전환하고, 2011년에 관련 훈령을 제정한 뒤 매년 과제성과를 평가해 우수과제 수행팀, 유공부대,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군 모든 분야에 적용하도록 했으며, 2019년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 과제 발굴을 강조하고, 2020년부터는 국방개혁 연계 과제를 추가하여 발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2012년 처음 1위를 한 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으로 1위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공군이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석권했습니다.(미소)

2022년 린6시그마 | 국방 경영혁신의 주역들!

공군본부 군참부[8·19전투비행단 시행]

 대령 전병욱 챔피언	 5급 하기홍 앱개발자	 중령 한태현 총괄 팀장	 대위 윤규청 팀원	 대위 곽민선 팀원	 중령 김한왕 팀장	 대위 심태수 팀원	 원사 여인관 팀원
-------------------	--------------------	---------------------	------------------	------------------	------------------	------------------	------------------

**모바일 활용 화생방물자 치수조사 기반체계 개발
(예산절감효과 연간 32.04억원 검증 완료)**

2022년 명예의 전당에 오른 최우수 과제와 팀원

Q.3

2022년 1~4위 과제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A 1위(대상)는 ‘모바일 활용 화생방물자 치수 조사체계 개발’입니다. 화생방물자는 방독면·보호의·덧신·장갑 등으로 크기에 따라 호수가 구분됩니다. 기존의 절차는 각 부대 행정담당이 소속 장병과 군무원의 치수를 일일이 조사했기에 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앱(App)을 만들어 URL-주소를 전파한다면 장병과 군무원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치수를 선택함으로써 조사에 들던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제는 제가 군무원으로 신분전환 하기 전 즉, 공병 병과 장교로 공군에서 복무하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을 연계해 생각해낸 과제입니다. 과제 발굴부터 개선방안 도출, 조사체계 개발까지 직접 했기에 제게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2위(최우수)는 공군이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적 방공망 제압용 무인기의 탐색기 정비 기술’을 개발한 과제 ‘Harpy 군직 창정비 능력 확보를 통한 수명 기간 연장’이며, 3위(우수)는 ‘KF-16 성능개량 개조 정비능력 확보’, 4위(우수)는 위내시경과 비슷한 원리의 비디오키프라는 장비를 활용해 항공기 엔진을 분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하는 ‘비디오키프를 활용한 예방정비 점검절차 개선’입니다.



2022년 1위 과제 ‘모바일 활용 화생방물자 치수 조사체계 개발’ 앱

Q.4

정비와 관련 과제만
있나요?

A 항공기·무기·정보통신 기기 등의 정비 과제가 많긴 하지만, 교육·의무·공병·보급 등의 비(非)정비과제들도 있으며, 실제로 수상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 분야 과제인 ‘창의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2016년 6위(동상))’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전문성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의 ‘교관 중심의 지식 전달형 교육체계’를 창의·인성·문제해결 등의 교과목 신규편성, 다양한 교수 방법 적용, 교육 중 실습·토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생 중심의 경험·참여형 교육체계’로 바꾼 과제입니다. 이처럼 정비가 아닌 체계와 문화를 바꾸는 것도 혁신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 분야의 ‘KT-1 기본비행 교육과정 운영 개선(2012년 1위)’, 의무 분야의 ‘전·평시 의무물자 인가기준 개선(2019년 1위)’, 또, 앞선 “Q2”에서 설명해 드린 공병 분야의 ‘모바일 활용 화생방물자 치수 조사체계’ 앱(App) 개발을 비(非)정비 과제의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Q.5

연평균 과제수행량은?

A_제가 경영혁신담당으로 근무한 지난 7년을 돌이켜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1년에 평균 40건 정도의 과제가 제출되고, 그 중 완료되는 과제는 10건 정도입니다. 국방부 장관 표창, 국방 린 6시그마 명예의 전당 게시, 성과상여금 등 포상이 매력적이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가 제출되지만,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업무 외 시간을 투자해서 별도의 예산 없이 진행해야 하니 완료되지 못하고 종결되는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Q.6

국방 린 6시그마
과제수행 절차는?

A_업무 개선에 대한 구상만 있으면 어느 때든 과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방 린 6시그마 과제실행계획서'를 작성해서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군수기획과로 문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분야·신분·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과제로 선정되면 군수기획과에서 '과제지도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해 과제수행부대를 뽑고, 과제 참여를 지시합니다. 과제수행팀은 대내외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으며, 논리적인 문제해결 절차 '5단계(DMAIC) 25스텝'에 맞춰 과학적인 통계 및 분석 기법 50여 개를 활용해 과제를 진행합니다. 과제 제출 전에 많이들 고민하는 부분이 예산 절감효과 같은 수치를 어떻게 산출할 지인데, 대내외 전문가들이 도와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완료된 과제는 총 3회(공군본부 2회, 국방부 1회)의 평가를 받습니다. 공군본부에서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간 평가(9월)와 완료된 과제를 발표하고, 과제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MBB, FEA)에게 내외부 검증을 받는 최종 평가(11월)를 통해 공군의 우수 과제를 선발합니다. 선발된 과제들은 12월에 국방부로 넘어가 '논리적인 전개성', '데이터의 신뢰성', '유무형 성과' 등에 관한 평가표에 따라 심사받습니다.



논리적 문제해결 절차 5단계(DMAIC) 도표

Q.7

국방·군사 제안과의
차이점 및
국방 린 6시그마의
발전 방향은?

A_혁신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방·군사 제안입니다. 제안은 개인이 참여할 수 있고, 성과가 좋은 경우 국방부의 포상은 물론 특별승진 등 인사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최우수과제로 선정되면 개선과제의 기대효과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포상금과 함께 큰 명예도 얻게 됩니다. 이에 반해 '국방 린 6시그마'는 팀으로 활동하게 되며, 국방·군사 제안보다 더 큰 성과가 난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평가를 거친 상위 과제만 제한적으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아닌 순위에 의한 포상체제가 우수한 과제들이 많은 해에는 아쉽곤 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다양한 혁신 활동을 하나의 부서가 통합·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과제의 규모·성과를 절대평가해 포상을 합니다. 군도 과제 참여자들이 혁신 활동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개선과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과제가 선정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업무·예산 효율화, 조직운영발전, 전투력 향상이란 목표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읽는 게 '좋은 공군'

독서생태계 조성과 독서복지 실현 노력을 통한
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



자기계발 또는 새해 목표를 이야기할 때 3가지 안에 운동과 독서가 대부분 포함될 정도로 사람들은 운동과 독서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독서율은 47.5%, 독서량은 2019년 대비 3권이 줄은 4.5권에 불과합니다. 성인들이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 '다른 매체와 콘텐츠의 이용'(26.2%) 등이 꼽혔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도 없지만, 시간이 생기더라도 다른 매체나 콘텐츠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독서는 지식을 얻고, 타인의 경험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의 여러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휘력, 문해력, 집중력, 상상력 등 뇌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독서의 대상과 방식이 종이책, 전자책을 넘어 웹 소설, 웹툰, 인터넷 신문, 오디오북, 챗북(채팅 형태의 콘텐츠 읽기)으로 확장되고 있는 요즘, 원하는 방식으로 한 문장씩이라도 매일 읽는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을 위한 공군의 독서 장려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2022년 공군 독서왕(최우수)에 선발된 군수사령부 제82항공정비창의 이승윤 중사



공군본부의 2023년 신년 북 콘서트, 나태주 시인의 '시를 통해 헤아리는 삶의 지혜'

나태주 시인이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따뜻한 글귀를 '토닥토닥' 코너(50쪽)에서 전달합니다.

독서생태계 조성

공군은 병영독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독서 관련 행사를 기획해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째는 매년 2회씩 시행하는 ‘공군 우수독후감 선발대회’입니다. 공군 장병과 군무원은 누구나 일반도서 또는 우주분야 도서, 2가지 분야의 독후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독후감은 부대나 공군본부의 1차 심사, 외부 전문심사위원의 2차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반기마다 총 20편(일반도서 18, 우주도서 2)의 우수독후감을 선발해 장병들의 독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군 전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진행하는 ‘공군 독서퀴즈’ 이벤트입니다. 전자책 요약본에서 출제되는 퀴즈 3문항에 관한 답변을 게시글로 작성하면 응모 완료! 정답자 명단으로 번호 추첨 앱을 활용해 약 40명의 당첨자를 추첨합니다. 당첨자들은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상품으로 받게 됩니다. 1회당 응모자가 중복 응모자를 제외하고도 매년 2천 명을 넘길 정도로 늘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는 이벤트입니다.

셋째, 진짜 독서왕을 찾는 대회! ‘공군 독서왕 선발대회’입니다. 인터넷 ‘독서사랑’ 홈페이지 참여 코너에 독서감상문/좋은 글/독자추천 게시물을 작성한 실적, 우수독후감 선발대회 참가 실적, 병영도서관 주관 독서프로그램 참여 실적, 병영도서관 도서 및 공군 전자책 대출 실적 등 다양한 기준을 모두 평가해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제5공중기동비행단의 독서코칭

이외에도 전문강사로부터 독서법을 배우고, 그룹 독서 토론을 하는 ‘독서코칭’, 독서퀴즈 대회 ‘독서 골든벨’, 책 속에 보물 쪽지를 숨겨두고 대출 후 발견 시 선물을 제공하는 ‘보물찾기’, 마라톤 거리 1m를 책 1쪽으로 환산한 코스를 기한 내에 완주하는 ‘독서 마라톤’,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나 독서토론회, 장병들의 대학도서관 이용 기회 부여 등을 합의하는 학·군 제휴 협약 등 각 부대 병영도서관들은 병영독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9비, 병영도서관 개관

독서복지 실현

공군은 2019년에는 “1인당 1개월에 1권 이상 책을 읽자”라는 독서 습관 형성 운동인 ‘1.1.1 독서운동’을 전개했고, 같은 해 4월부터 전자책을 대출해 읽을 수 있도록 인터넷·인터넷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장병들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애쓰고 있습니다. 공군 장병과 군무원이라면 누구나 휴대전화에 ‘교보도서관’ 앱을 설치하고, ‘공군 도서관’을 선택한 다음 월 1회, 공지사항 등으로 전파된 인증번호로 인증하면 공군 도서관의 보유도서 1권을 5일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소외 장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영도서관·전자도서관 운영, 진중문고 비치 외에도 책방, 북카페 등을 꾸준히 개장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청춘책방 공군 8호점이 제8968부대에 개관했습니다. 청춘책방은 (주)롯데와 구세군의 군 지원사업으로, 공군은 2018년 1호점(제8355부대)을 시작으로 총 8곳의 청춘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군 청춘책방 8호점(제8968부대)

강설·한파에도 빈틈없는 영공방위태세 유지

공군 비행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활주로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빈틈없는 항공작전 수행을 지원을 위해
각 비행단은 제설통제본부를 운영하며,
제설 인원과 장비를 즉각 투입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각 비행단에서 긴급제설작전을 수행했던 SE-88과
활주로를 이륙하는 공군전투기 모습을
함께 감상하시죠! 



퇴역 전투기 엔진을 장착한 대표적 제설장비
SE-88은 약 3km의 활주로의 눈을
30분 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19전비, F-16 이륙하는 모습



17전비, F-35A가 이륙하는 모습



11전비, SE-88이 제설하는 모습



20전비, SE-88이 제설하는 모습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E-737 PEACE EYE

하늘의 지휘소, E-737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과 작전능력 보유를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항공통제기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감시자라는 의미의 ‘피스아이 (Peace Eye)’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사각지대 없이 전천후로 360도 전방위 공대공·공대지 탐지/감시/통제가 가능하며, 목표 지역을 10초 이내로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공중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고정된 지상의 레이더에 비해 생존확률이 월등히 높다. 





길이 33.6m

폭(너비) 34.3m

높이 12.5m

비행시간 9시간

항속거리 7,040km

특성

다기능 전자식 위상배열(MESA) 레이더 장착
한반도 전역의 1,000여 개 표적 동시 탐지 가능



비운의 명 항공기 II

성능은 뛰어났지만 양산에 이르지 못한 사연

경량 고성능 전투기 YF-17 코브라



미국 노드롭사의 경전투기 YF-17

1950년대 미국의 전투기 제작사들은 F-101, F-105, F-106으로 대표되는 'F' 100번째 센추리 시리즈 대형전투기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시 노드롭사는 대형보다는 소형 전투기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N-102 FANG, N-156(F-5), N-300, P-530, P-600(YF-17)으로 이어지는 경전투기를 차례로 등장시켰다.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2,600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F-5 전투기 시리즈는 노드롭사가 주목한 경전투기 시장이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노드롭사는 F-5 시장을 이어갈 후속작으로 P-530 코브라 전투기를 개발했다. 철저하게 수출을 목적으로 한 P-530은 마하 2급의 다목적 고성능 전투기면서, 획득비용은 놀랍게도 F-5 수준을 목표로 했다. P-530의 저렴한 운영유지비를 강점으로 F-104, F-5 운용국에 대량 수출하는 것이 노드롭사의 구상이었다.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P-530은 소형 터보제트 엔진을 쌍발로 장착했다. 특이한 모양 때문에 '코브라'라는 별명을 안겨준 날개 앞전 연장익을 날개와 동체 사이에 붙여 기동성을 향상시켰다. 1971년 1월, 마침내 노드롭사는 P-530을 각국 공군에 공개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P-530을 구매하겠다고 나선 국가는 없었다.

노드롭사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다가온 것은 오히려 내수 시장이었다. 미 공군이 고성능 전투기인 F-15를 보조할 수 있는 경량전투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노드롭은 이미 개발해놓은 P-530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재설계한 P-600안을 제시했다. 여러 제작사의 경쟁 결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GD-401안과 노드롭의 P-600안은 높은 점수를 얻어 각각 YF-16, YF-17로 명명되었다.

1974년에 초도비행을 성공한 YF-17은 계속된 시험비행에서 미국 항공기 역사상 처음으로 후기연소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초음속을 유지하는 ‘초음속 순항성능’을 발휘했다. 그뿐만 아니라 68도의 받음각으로 기수를 들어 올리고도 안정된 비행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게다가 1975년에는 수평비행 중 순간적으로 기수를 105도까지 세우는 ‘행 앤드 후크(hang and hook)’ 기동을 선보여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 기동은 1980년대 말 러시아의 Su-27 전투기가 에어쇼에서 선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던 코브라 기동과 유사한 것이다.

놀라운 기동성과 뛰어난 성장잠재력을 지닌 YF-17이었지만 정작 YF-16과의 경쟁에서는 패배했다. 경량전투기 프로그램이 고성능 기종보다는 수명주기비용이 적은 기종의 확보를 목적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쌍발 전투기는 단발 전투기에 비해 크기가 커지고, 운영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쌍발 전투기인 YF-17은 단발 전투기인 YF-16과의 경쟁에서 불리했다.



경쟁 관계였던 YF-16(아래)과 YF-17(위)

비록 YF-17이 경량전투기 프로그램 경쟁에서는 YF-16에게 밀렸지만, YF-17 자체가 실패한 기종은 아니었다. 미 해군의 주력 전투공격기 F/A-18 호넷이 YF-17을 근간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F/A-18C/D 호넷은 F/A-18E/F 수퍼호넷으로 진화하면서 21세기 미 해군의 주력 항공기로 운용되고 있다. YF-16과의 경쟁에서의 패배로 YF-17은 비록 역사 속에 묻혔지만, F/A-18 계열의 성공으로 인해 YF-17의 가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놀라운 기동성과 뛰어난 성장잠재력을 지닌 YF-17



재설계를 통해 美 해군의 주력전투기 수퍼호넷 계열로 발전하게 된 YF-17

캐나다 CF-105 애로우 전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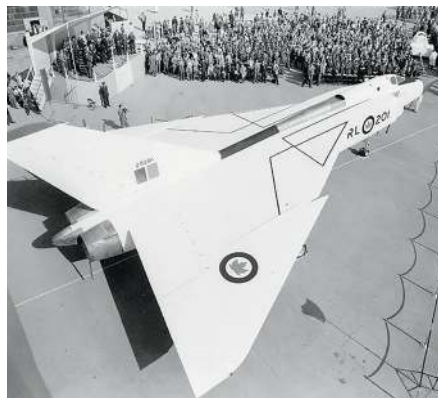


최고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이 시작된 CF-105

민간항공기 제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캐나다가 1950년대에 미국과 러시아 전투기보다 더 뛰어난 고성능 전투기 개발을 시도했었던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캐나다의 항공 기술력을 집대성한 CF-105



CF-105 시제기 출고식

1950년대 캐나다 영공방위의 주력 전투기는 CF-100 카누크 전투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랭카스터 폭격기 생산으로 유명했던 아브로 캐나다가 제작한 이 전투기의 성능은 미국의 F-94C 스타파이어와 비견됐다. 캐나다는 CF-100 양산 배치와 더불어 1953년부터 세계 최고 성능의 후계기 개발을 시도했다. CF-105 애로우(Arrow)로 명명된 이 신형 전투기의 요구 성능은 최대속도 마하 2(약 2,448km/h), 최대상승고도 18.3km, 전투행동반경 370km였다.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그 당시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놀라운 것은 항공전자와 무장 체계였다.

흔히 최초의 하방 탐색·공격 능력을 갖춘 레이더를 F-14A 전투기의 AWG-9 레이더로 알고 있다. AWG-9도 처음에 개발될 때는 완전히 디지털화되지 못한 펄스도플러 레이더였다. 아스트라(ASTRA)로 명명된 CF-105의 화력 통제 레이더는 1950년대에 이미 완전 디지털화에 펄스도플러 하방 탐색·공격 성능까지 갖추는 것을 개발 목표로 정했다. 게다가 아스트라 레이더는 세계 최초로 적외선 탐색 추적장치와 연동까지 고려할 정도로 시대를 앞서갔다. 이 레이더는 훗날 YF-12A의 ASG-18 레이더 개발로 이어져 탐색 거리 500마일(약 804.7km)을 자랑하게 된다.

레이더뿐만이 아니었다. 완전 자동화되어 착륙까지 지원하는 자동조종장치와 최초의 플라이바이 와이어를 추구한 제어계통 개념까지 합하면 1950년대 기술로 CF-105를 완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애로우에 탑재될 무장은 스페로우 II 미사일이었다. 스페로우 II는 서방측에 널리 알려진 반능동 레이더유도 방식

의 스페로우 III와 달리 능동 레이더 유도방식을 사용했다. 대형의 피닉스 미사일로 1970년대 중반에야 겨우 실용화된 능동 유도방식을 1950년대 기술 수준으로 크기도 작은 스페로우 미사일에 적용하는 것은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엔진도 당시 기술로서는 어려운 도전이었다. CF-105에 사용될 이로쿼이즈 엔진은 최대추력 11.8톤급으로 당시 대형 전투기에 사용되던 J75의 추력 8.4톤보다 훨씬 컸다. 이는 F-15를 위해 1970년대에 탄생한 F100-PW-100 엔진의 10.8톤 추력보다도 큰 것이었다.

앞서 서술한 항공전자와 무장, 엔진은 기본형인 애로우 Mk.1 사양이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파생형으로 계획된 애로우 Mk.3가 최대속도 '마하 3.5(약 4,284km/h)', 전투속도 마하3(약 3,672km/h)이라는 극단적인 성능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XF-108을 대신해 미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계획된 애로우 Mk.4는 추력 7톤의 램제트 보조 엔진을 4개까지 탑재할 계획이어서 마하 3급의 XB-70 폭격기 호위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개발비 급증으로 개발이 취소된 CF-105

결과적으로 CF-105가 추구한 성능은 2020년대인 지금 시점에서도 개발이 쉽지 않은 것이었다. 1950년대에 불가능에 가까웠던 무장과 항전체계, 엔진의 조합은 개발 기간의 연장과 개발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왔다. 레이더 개발비의 급증은 이로쿼이즈 엔진 개발 취소로 이어졌고, 급기야 1959년 2월 20일, 캐나다 총리는 CF-105 개발의 전면 취소를 선언했다. 개발비 급증이라는 직접적 영향과 경쟁 기종의 탄생을 원치 않았던 미국 입장의 간접적 영향으로,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캐나다의 원대한 꿈은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

스텔스 헬기 RAH-66 코만치



스텔스 헬기 RAH-66

1980년대 미 육군은 차세대 공격헬기를 다목적 용도로 개발하여 무장·정찰·기동 헬기까지 하나의 기종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LHX(Light Helicopter eXperimental)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신형 헬기 개발을 통한 구체적인 대체 계획은 AH-1 공격헬기와 UH-1C 전습을 AH-64 아파치로 대체하고, 최종적으로는 LHX로 대체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OH-58A/C 카이오와, OH-6 카이유즈 정찰 헬기도 OH-58D 카이오와 위리어로 대체한 후 최종적으로 LHX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놀라운 사실은 다목적 기동 헬기로 사용되는 UH-1과 UH-60까지도 LHX 다목적형으로 통일한다는 것이었다. 대형 수송 헬기를 제외한 모든 미 육군 항공 헬기를 LHX 계열 하나로 대체하겠다는 이 야심 찬 계획은 냉전 시대의 꿈을 안고 1984년 확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LHX 개발에는 보잉/시콜스키팀과 벨/맥도넬 더글라스팀이 경합을 벌였고, 1991년 4월 5일 보잉/시콜스키팀이 경쟁에서 승리해 개발이 본격화됐다. RAH-66 코만치로 명명된 이 신형 헬기는 시제기가 1995년에 출고됐고, 1996년 1월 4일에 초도비행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RAH-66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 성능이다. 적의 중심 깊숙이 침투하는 전투 정찰 임무에서 높은 생존성을 얻기 위해 코만치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이 요구됐다. 이를 위해 코만치에는 F-117 스텔스기와 같은 다면체 방식의 설계가 적용됐고, 전파 반사와 소음이 큰 테일로터를 없애기 위해 패네스트론 방식이 적용됐다. 또한, 인입식 착륙장치와 대규모로 복합소재를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스텔스 설계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코만치는 AH-64 아파치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1/663이나 줄일 수 있었고, 적외선은 1/2.75, 소음은 1/1.6 수준으로 낮추어 생존성을 향상할 수 있었다.

스텔스성과 더불어 코만치를 미 육군 항공의 혁신적인 무기체계로 만든 것은 네트워크중심전 개념을 적용한 항전체계 덕분이었다. 코만치는 미 육군의 플랫폼 중 공중과 지상무기체계를 통틀어 처음으로 완전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갖춘다는 목표로 개발됐다. 이를 위해 고성능 컴퓨터를 내장하고 비화 디지털 통신체계를 갖춰 육군의 항공 및 지상부대가 원하는 공통 전장 정보와 영상을 신속히 전송하도록 개발됐다. 신속한 전장 정보 공유능력으로 다른 플랫폼들보다 더 많은 목표물을 인식하고 교



AH-64D 아파치(위)와 함께 비행하는 RAH-66(아래)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스텔스 성능까지 갖춘 코만치는 지상의 전장을 압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냉전 말기에 구소련의 신형 공격헬기와의 교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대공 전투 성능은 물론 대규모 기갑전을 수행할 만큼 충분한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모두 갖춘 헬기를 개발하는 것은 미국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전투형뿐만 아니라 병력수송이 가능한 다용도 형까지 고려하여 초기 개념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만치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위험도는 대단히 큰 것이었다.

1996년에 배치를 목표로 198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코만치는 전력화가 결국 2011년으로 연기됐다. 생산 대수도 1985년 당시 5,023대에서 2002년에는 650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개발 일정의 반복적인 지연으로 프로그램 비용은 급증하게 되었고, 긴 개발 기간 변화된 전장환경과 운용개념은 다시 기술적 요구수준과 개발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했다. 무리한 기술적 요구도와 프로그램 관리, 일정의 문제로 의회의 집중공격을 받아 온 코만치는 양산 대수 축소에 따른 단가의 급등으로 무기체계로서의 효율성을 의심받아 결국 2004년 2월 27일에 개발이 전면 취소되고야 말았다.

이스라엘 라비(Lavi) 전투기



이스라엘의 전투기 라비(Lavi)

이스라엘의 라비(Lavi) 국산전투기 개발 배경에는 크필(Kfir) 전투기가 있다. 크필 전투기는 프랑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자,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프랑스 미라지V 전투기를 개조해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이다.

외국 전투기의 개조 개발로 전투기 개발의 첫걸음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한발 더 나아가 전투기의 독자 개발을 추진했다. 독자 개발 전투기 개발 계획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79년이었으며, 공식적인 사업추진은 1980년 2월부터 시작됐다.

라비(Lavi)로 명명된 이 독자 개발 전투기는 이스라엘 공군의 지상공격 임무를 담당하던 A-4 스카이호크 공격기와 크필 전투기, F-4 팬텀 II 전투기를 대체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개발 요구도 또한 근접항공지원과 전장 항공차단 임무 수행에 중점을 두고 설정됐다. 라비 전투기의 공대공 전투 능력은 기본 임무로서가 아닌 부차적인 임무로 고려됐다.

라비는 수십 년 동안의 이스라엘 전투경험이 그대로 반영된 경량 다목적 전투기였다. 전체적인 형상은 꼬리날개 없는 무미익 카나드 델타형으로 설계됐고, 측면 형상은 F-16 전투기와 유사한 것이 특징이었다.



F-16과 유사한 라비의 측면 형상

라비의 공허 중량은 6.7톤, 최대이륙중량은 16톤급으로 중량 면에서 한국 공군의 KF-16보다 가벼운 편이었고, 전반적인 크기는 F-16 초기형에 해당했다. 다만 일반적인 주익-미익이 아닌 델타익을 적용했기 때문에 주날개 면적이 넓어 날개 면적당 하중은 F-16보다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엔진으로는 개발 초기에 F404 엔진을 한 개 탑재하는 것이 고려되었으나,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추력 9톤급의 PW1120 엔진으로 변경됐다. 비행제어 계통은 4중 전자식 비행제어 방식으로 기계적인 백업은 없다. 복합재는 카나드와 수직 꼬리날개 등에 적용되어 전체 구조 중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라비의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첫 시제기(B-01)의 초도비행이 1986년 12월 31일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두 번째 시제기(B-02) 초도비행도 1987년 3월에 실시됐다. 이스라엘의 첫 독자 개발 전투기 라비는 순조롭게 전력화가 진행될 것만 같았다.

1987년 8월, 첫 번째 시제기(B-01)가 초도비행에 성공한 지 채 8개월도 지나지 않아 라비 전투기 개발 계획은 돌연 취소되고 말았다. 라비 전투기 개발에는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었던 것이었다.

라비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컸다. 양산 계획 대수가 복좌형 60대를 포함하여 총 300대 규모에 달할 정도로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큰 사업이었으나, 이스라엘은 라비 개발비를 전액 부담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긴밀한 대미 관계를 이용하여 개발비의 약 40%를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계획을 전제로 라비 개발은 추진됐다.

미국 정부가 40%의 개발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라비 개발 사업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다. 미국은 라비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인 F-16, F/A-18과 수출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을 우려해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라비 개발에 미온적인 입장이었던 미 정부는 미국 국회가 라비 개발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비용과 예산상의 이유로 지원을 취소했다. 이후 자금 여력이 없던 이스라엘은 결국 독자 개발 전투기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의 라비 전투기 개발 사업 실패 사례는 외부 자원에 의존한 독자 무기체계 개발이 사업적으로 왜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남아있다. [1]



꼬리날개가 없는 무미익 카나드 델타형으로 설계된 라비



정면에서 본 라비



글쓴이 임상민 박사(『전투기의 이해』 저자)

한국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 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박물관에서 본 세계 공군

150대의 항공기가 간직한 이스라엘 공군의 역사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있으며,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친 넓이와 비슷한 작은 나라다. 동쪽으로는 시리아와 요르단,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구 868만 명의 이 나라의 연 국민 개인소득은 연 43,300달러 수준이다. 이스라엘군은 현역 169,500명(육군 126,000, 해군 9,500, 공군 34,000)과 예비군 465,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네게브 사막지대의 브엘세바(Beersheba)에 있는 공군박물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투기와 현대전에서 맹활약했던 미라주, 토네이도, 팬텀, F-16, F-15, 미그기 등 약 150대를 펼쳐 놓고 있다.



이스라엘 아카바만 해변의 경치



이스라엘 브엘세바 공군박물관 외부 전시장에 진열된 항공기들



관광도시 에일라트에서 본 이스라엘의 풍요로움

브엘세바 공군박물관에서 1시간 정도 자동차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최남단 아카바만의 도시 에일라트가 있다. 티란 해협을 끼고 있는 이 관광도시는 시나이반도 관문이며,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 국경이 접해있다.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인 이 해협이 봉쇄되면,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남단을 거쳐 하이파 항으로 물자를 운송해야 한다. 1956년, 1967년 전쟁 발발원인 중 하나도 이집트의 티란 해협 봉쇄였다. 거울같이 맑은 아카바만은 세계의 해양 스포츠 메카로 탈바꿈해, 해변에는 수십 개의 고급호텔이 즐비하다. 하지만 국경으로 접근하면 지뢰지대 경고판이 곳곳에 있다. 4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겪으면서도 경제적 풍요함을 누리는 유대인의 지혜는 정말 독특했다.



이스라엘 브엘세바 공군박물관 입구에 전시된 엔테베 특공작전 공중지원기 보잉 707

최고의 전투조종사 기량 원천과 살아있는 전설의 공군 에이스

1983년 훈련 중이던 이스라엘 F-15D와 A-4기가 공중 충돌했다. F-15는 오른쪽 앞날개가 잘려나갔고, A-4기는 추락했다. F-15 조종사는 동체의 수평 유지에 안간힘을 썼다. 비스듬히 비튼 비행자세에서의 노련한 비행술로 16km 떨어진 라몬 기지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고3 학생들에게 “하버드를 가느냐? 옥스퍼드를 가느냐?”는 큰 관심사가 아니다. 졸업과 동시에 대부분 입대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투 조종사, 특수부대 등 가장 엄격한 자격조건과 힘든 훈련을 거치는 부대에 선발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브엘세바 공군박물관은 우수한 조종사 기량의 원천이 이런 청소년들의 창공에 대한 뜨거운 꿈과 애국심이라고 소개한다.

이스라엘 공군 최고의 에이스 나후미(Nahumi) 대위는 1973년 10월, 시나이반도 오피라 공군기지에서 팬텀 조종

사로 비상대기 중 제4차 중동전쟁을 맞이했다. 28대의 이집트공군기가 기지를 기습하자, 편대기 1대와 함께 긴급 발진했다. 2대 28로 적기를 대적하는 긴박한 상황. 급상승! 급강하! 공중제비! 7G의 고통을 극복하며, 나후미는 이집트 공군기 5대를 격추했다. 그후 시리아 전선에서 2대의 미그기 격파와 레바논전쟁에서의 전과를 포함해 총 14대의 적기를 격추함으로써 그는 전설의 공군 에이스로 불리고 있다.

단 '1분 20초' 정밀폭격으로 핵시설 무력화

1981년 6월 7일 오후 3시 55분, F-15 6대, F-16 8대가 시나이반도 에티온(Etzion) 기지에서 출격했다.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제거를 위한 오페라작전의 시작이었다. 목표지점까지는 왕복 3,200km. 기만 통신으로 요르단·사우디 영공을 무사히 통과한 후 이라크 국경부터는 레이더 회피를 위해 고도 30m를 유지했다. F-16 편대는 2,130m 고도로 급상



승한 후, 강하 각도 30도로 16발의 고성능폭탄(MK84)을 투하했다. 전투기들은 엄청난 폭음을 뒤로한 채 12,190m까지 고도를 높이며, 재빨리 이탈했다. 핵시설을 초토화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20초’. 대공포가 불을 뿜었지만 이미 전투기들은 사라졌고, 핵시설은 재가동 불능 상태가 됐다.

이스라엘군의 신화 ‘엔테베 특공작전’

공군박물관 입구에는 ‘엔테베 인질 구출 작전’ 당시 공중 지휘기였던 보잉 707 민항기가 있다. 1976년 6월 27일, 승객 242명을 태운 프랑스 여객기가 납치돼 아프리카 중부 우간다로 끌려갔다. 이스라엘은 우간다 대통령, 테러단체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인질범이 승객 공개처형을 최종 통보해 오자 이스라엘은 군사적 수단 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스라엘과 우간다의 왕복 거리는 8,000km. C-130 수송기는 공중급유 없이는 회항할 수 없었고, 비행경로 상의 에티오피아·수단·소말리아는 적대국이었다. 하지만, 1976년 7월 3일 오전 3시 10분, 280명의 특공대는 4대의 수송기에 나눠 타고 출동했다. 부족 연료는 수송기에 싣고 가서 공항에서 직접 주유하기로 했다. 비행 시작 7시간 30분 후인 오후 10시 40분, 수송기 4대가 캄캄한 엔테베 공항에 조용히 착륙했다. 관제탑의 우간다군은 수천 km 밖의 이스라엘군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우간다 대통령으로 분장한 특공대원이 벤츠 승용차를 타고 인질 막사로 접근했다. 대통령 출현에 깜짝 놀란 경비병은 소음권총에 맥없이 쓰러졌다. 전광석화 같은 특공대의 기습작전으로 석방된 승객 외 103명의 유대인이 극적으로 구출됐다. 53분간의 작전에서 인질범과 우간다군 총 52명이 사살됐지만, 이스라엘군 전사자는 지휘관, 조나단 네타냐후 중령이 유일했다. 이스라엘은 지휘관 1명의 희생으로 인질 103명을 구한 이 특공작전을 ‘조나단 작전’으로 명명했다. 



글쓴이 신종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쟁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있다.

내 옆의 공군인

제45화
2022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김예성 중위



공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그리고 월간 『공군』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12월에 학사 145기로 임관한 뒤 교육사령부 행정학교 정보교육대대에서 복무 중인 김예성 중위입니다. 제 좌우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없고, 도전에는 항상 실패가 따를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도전하고, 그로 인한 변화로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수상은 제게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재상’이란?

‘대한민국 인재상’은 만 15~34세 청년 중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란 3가지 요소를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 100명(고등학생 50명, 대학생·청년일반인 50명)을 발굴하여 시상·지원하는 교육부 주최, 한국장학재단 주관 사업입니다.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으로 시작해 2008년 ‘대한민국 인재상’으로 개편한 뒤 현재까지 약 2,300명의 인재가 선발됐습니다. 대표적인 수상자로는 2008년 피겨선수 김연아, 2014년 악동뮤지션의 이찬혁, 2021년 양궁선수 김제덕이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의 김예성 중위



2022년 대한민국 인재상 상장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

부담 컸지만 주변 도움과
응원으로 이겨내

부족한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저의 꾸준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 찾아서 해 온 그동안의 제 노력을 인정받은 듯해 기쁘기도 하지만, 큰 상을 받은 만큼 사회공헌에 기여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사실, ‘대한민국 인재상’을 준비하는 기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출할 서류·발표 준비를 부대 업무, 대학원 학업과 병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몸도 힘들었지만, 특히 동시에 많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발표 날까지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평균 수면시간이 4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수상 발표 이후에도 한동안은 그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웃음) 제가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교육대대장 오형모 중령님을 비롯한 주변 분들의 응원과 도움,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

헌신, 소통, 책임, 봉사



노숙자들을 돌볼 당시의 소감(SNS)

저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인 헌신, 소통, 책임, 봉사를 실현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영국 유학 시절에는 브라이언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유학생들을 모아 대규모 K-POP 행사도 진행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식을 만드는 체험행사도 수십 회 주최했습니다. 제일 보람을 느꼈던 건 영국에서 임신한 노숙자를 수개월 집에서 보살폈을 때입니다. 2018년 늦은 여름, 영국 자취방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창고 문을 열었고, 노숙자 커플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창고에서 며칠 지낸 듯 각종 쓰레기와 누울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제 자전거도 가져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려던 순간, 여자의 배를 보고 홀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니, 남자는 불법체류자라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어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제 자취방 창고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 그들이 창고에 지내는 걸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매트리스와 침구류, 옷 등을 사서 선물하고, 최소 하루 한 끼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제 생일날 노숙자 커플에게 케이크와 양말, 편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절 위해 얼마나 많은 동전을 구걸하고 아꼈을지 알기에 그날의 감동은 여전히 잊을 수 없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창고를 정리하고 사라졌고, 그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던 어느 날 길에서 동전을 구걸하던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절 꼭 안으며,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꺼내 아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위해 일용직 근무와 구걸 등을 하며, 마약도 끊었다고 했습니다. 제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이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가치 전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는 방역대책담당으로 자원해 부대와 부대 인근 보건소에서 대응 활동 봉사를 했으며, ‘주민과 부대의 유대강화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연평균 20건의 민원을 5건으로 줄였습니다.

병사들의 개인 진로 및 병영생활 상담 등의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립된 환경의 소속 중대 병사들의 애로를 수렴해 병사순환근무제를 설계해 승인받았습니다. 또, 산악지형 경계 근무를 위한 CCTV 사업, RFID 통제체계사업 등의 사업을 건의하거나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VR 낙하산 시뮬레이터 사업 때는 美 생환 교관들을 초청해 통역해가며, VR 낙하산 장비의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도 미군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VR 낙하산 시뮬레이터 사업 중 미군과 교류하는 김예성 중위

차세대 안보전문가를 꿈꾸다

평화를 위해 한 우물

학창시절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영국 서섹스대학교의 국제관계·국제개발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동북아시아, 특히 북한과 중국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국제 정세와 체제에 관해 배웠습니다. 학사학위 취득 후 입대 전까지는 미국의 방산 기업 GE의 한국지사(GE Aviation Korea)에서 최연소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때 만난 멘토분들께서 공군 장교 출신이 많으셨고, 적의 전략과 움직임, 위협 자산을 분석하는 정보 병과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공군 정보 장교를 선택하는데, 그리고 ‘안보전문가’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는 데 멘토분들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KDI 국제정책대학원(KDI School) 공공관리학 석사 과정에 진학해 ‘국군 혁신 제고안’, ‘국방전략개선안’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산 전략기획 분야에 관심이 생겨 전역 후 방산업체 취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보’는 국민의 안전이 보장돼 매일 밤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국제사회의 영향과 북한의 현 체제 포기 가능성이 작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을 대비한 국방력 강화 외에도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국제 평화를 위한 국가안보는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이 스스로 되돌아보며, 꿈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다시 그려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지식을 쌓고, 안보 의식을 높여 국방 개혁과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는 차세대 안보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월간 『공군』 담당자와 인터뷰 중인 김예성 중위

KF-21 보라매, 첫 초음속 비행 성공!

대한민국, 세계 8번째 초음속전투기 개발국의 반열에 성큼 다가서다!

1월 17일(화) 오후, KF-21 보라매는 사천기지를 이륙한 뒤 남해 상공 약 4만 피트(약 12.1km)를 비행하면서 음속(마하 1·시속 약 1,224km)을 돌파했습니다. 약 1시간에 걸친 비행 동안 3차례 초음속 비행 시도에 모두 성공함으로써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의 음속 돌파 비행 최초 성공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비태세 현장지도

정상화 참모총장은 1월 18일(수), 수도권 북부에 있는 미사일방어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처럼 국가방위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투 요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격려하며, 혹한의 날씨에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접견

정상화 참모총장은 1월 17일(화), 공군본부에서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경두 회장(공사 30기)과 임원진 일행을 접견하고, 공군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들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2023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



정상화 참모총장은 1월 13일(금),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학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주최로 열린 ‘2023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항공우주인들과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발전 방향과 전망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는 ‘우주시대’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항공우주 분야를 국가발전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관련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공군은 우주안보를 완벽하게 지켜나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학계와 산업계 등 관련 단체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국가와 국방 우주력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제2기 공군 검찰단 장병 기자단 위촉식



정상화 참모총장은 1월 16일(월), 공군본부에서 ‘제2기 공군 검찰단 장병 기자단 위촉식’을 주관하며, 장병 기자단으로 선발된 20명의 장병과 군무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참모총장은 장병 기자단에게 공군 장병의 인권과 공군 검찰단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군기상단

기상정보센터 창설식

공군기상단은 1월 5일(목), 공군기상단 강당에서 기상정보센터 창설식을 진행했다. 기상정보센터는 공·육·해군 기상정보 생산 및 기상장비 정비 업무 총괄, 기상체계 관리 및 수치예보모델 운영, 우주기상 업무 조정·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교육사령부

공군 병 843기 수료식

교육사령부는 1월 6일(금), 최용덕관에서 공군 병 843기 수료식을 거행했다. 1주의 입영전형과 4주의 교육훈련을 마친 882명의 정예 공군 병사가 가족·친지들의 축하 속에 탄생했다. 이들은 각자 부여 받은 특기 교육을 마치는 대로 공군 각 부대에서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제3훈련비행단

한국항공우주소년단 부대 견학

제3훈련비행단은 1월 17일(화), 한국항공우주소년단의 부대 견학을 지원했다. 한국항공우주소년단은 항공우주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 초등·중학생으로 구성됐다. 일정은 조종사와의 만남, 항공 장구 착용 및 KT-1 시뮬레이터 체험, KT-1 항공기 정비 현장 견학, 병영식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제17전투비행단

공·육 합동 대테러 집중 훈련

제17전투비행단은 1월 10일(화)부터 1월 12일(목)까지 3일간, 기지 내 기지방어 종합 훈련장에서 공·육 합동 대테러 집중훈련을 시행했다. 유형별 건물 내부 수색·소탕, 레펠, 사격 훈련 등을 통해 복합적인 대테러 상황에서의 상황 조치절차를 점검하고, 작전 요원들의 대테러 임무 수행능력을 강화했다.



제18전투비행단

야간 가상적기 공격 대응훈련

제18전투비행단은 1월 4일(수), 기지로 귀환하는 F-5 전투기를 적기로 가정한 야간 가상적기 공격 대응훈련을 시행했다. 훈련에는 대공방어대 장병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훈련은 신궁·발칸 등의 대공방어 무기로 적기를 추적·조준하는 능력 향상과 적의 야습에 대비 야간 조준기 활용 능력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제39비행단

아동보육시설 물품 기부

제39비행단 제131정비대는 1월 17일(화), 부대 인근 아동보육시설 '신애원'을 찾아 기부품을 전달했다.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위문봉사를 지속해온 제131정비대는 작년 말, 12월을 '연말연시 나눔의 달'로 정해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장난감·의류·신발 등의 기부품을 모았다. 또, 모아진 기부품에 간식과 생필품을 함께 전달해 따뜻한 온기를 더했다.



슬기로운 장병생활

배부르게 먹지 말자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고려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1992년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90기로 임관해 공군사관학교에서 3년간 영어 교관으로 근무했다. 1995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산업부와 정치부, 국제부 기자, 중소기업부 부장을 거쳐 현재는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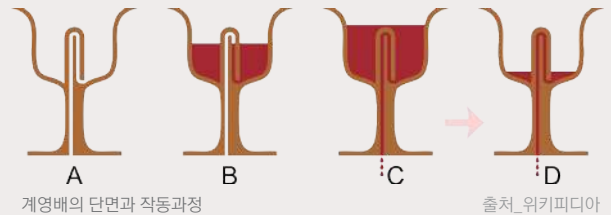
어느 날 선배 한 분이 가난했던 어린 시절 뷔페식당에 처음 갔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샐러드와 김밥, 초밥, 생선회, 케이크, 빵, 아이스크림까지 평소 먹지 못했던 음식이 널려 있는 황홀감에 자제력을 잃었다고 한다. 아무리 먹어도 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다. "이제 슬슬 먹어 볼까." 식욕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그는 마음껏 식탐을 발산했다. 이것저것 정신없이 먹다 보니 위장에 과부하가 걸린 지도 몰랐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고통이 몰려왔다. 포만감을 넘어 배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이었다. 위에 도달했던 음식들의 역주행이 시작됐다. 밥알과 반찬, 국물이 뒤엉켜 토내 이도처럼 소용돌이쳤다. 그러더니 세차게 솟구치며, 식도로 밀려들었다. 참을 수 없는 욕지기가 목구멍에 팽창했다. 감미로운 입맛과 행복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토할 것 같은 긴박함과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는 급하게 손으로 입을 막으며, 식당을 나와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선배는 먹는 즐거움과 행복감이 고통으로 바뀌었던 뷔페식당의 추억을 이렇게 갈무리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도가 넘치면 사달이 나기 마련이다. '순자(荀子)'에 이런 일화가 나온다. 공자가 노나라 환공의 무덤이 있는 사당을 방문했을 때였다. 여기저기 둘러보다 이상하게 생긴 그릇을 발견했다. 그릇은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다. 공자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궁금해 묘지기에 물었다. "이것은 거처하는 옆에 두고 교훈으로 삼으라는 그릇입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런 그릇이라면 속이 비면 기울어지고, 알맞으면 바로 서고, 가득 차면 엎어진다고 했다. 물을 갖다 부어 봐라." 제자들이 물을 부었더니 공자가 말한 대로 알맞은 양이 들어갔을 때 바로 서고 가득 차니 다시 엎어지며 물이 흘렀다. 이를 보고 공자가 말했다. "가득 차고도 엎어지지 않는 것

이 어디 있을까. 바로 서려면 똑똑하고 슬기로워도 어리석어 보여야 하며, 공로가 천하를 덮을 만하더라도 항상 겸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용맹스러운 힘을 세상에 떨칠지라도 언제나 조심스러워해야 하며, 온 세상을 차지할 부귀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늘 겸손해야 한다.” 바로 옆에 교훈 삼아두는 그릇의 이름은 ‘유좌지기(有坐之器)’다. 어떤 일을 할 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큰 성공을 하더라도 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좌지기’와 같은 뜻으로 더 널리 알려진 물건이 ‘계영배(戒盈杯)’이다. 풀이하면 “가득 채움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이다. 유좌지기처럼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하면 흘러넘치게 설계돼 있다. 조선의 도



공인 우명옥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최인호의 소설 ‘상도(商道)’에 나와 유명해졌다. 최 작가의 소설은 1980년대 청춘 시절을 보낸 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겨울 나그네’와 ‘깊고 푸른 밤’ 등의 소설이 영화로 제작될 정도였다. ‘상도’에서 계영배는 조선의 대상인이었던 임상옥이 늘 곁에 두고 있던 잔이었다.

재물은 인간의 탐욕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아흔아홉 섬을 가진 자가 한 섬 가진 사람 것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말처럼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심은 막기 힘들다. 명예도 마찬가지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서슴지 않은 일이 적지 않다. 열심히 노력해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지, 친구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임상옥이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성공의 함정’이었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 엄청난 재산을 모았으나, 그는 그것이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이치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계영배를 항상 옆에 두고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중용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피라미와 방어는 햇빛이 비치는 물 위로 떠오르는 물고기인데, 그것이 지나쳐 모래까지 올라와 걸리곤 한다. 하지만 그런 후에 다시 물로 돌아가려 하는 건 이미 늦은 일이다.” 순자가 환난을 피하는 지혜를 가르칠 때 들었던 비유다. 무엇이든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고 과도하게 달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절제는 쉽지 않다. 뷔페식당처럼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을 때 배탈이 나고, 재물이 풍성하면 근심도 늘어난다.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두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왔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되 최대한 최소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에 순자는 이렇게 답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일할 때를 보면 가득 찼을 때는 모자란 경우를 생각하고, 평탄할 때는 험악한 경우를 생각하며, 편안할 때에는 위험한 경우를 생각한다.” 노자는 아예 이것이 삶의 원리라고 설파한다. “화혜복지소위, 복혜화지소복(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 재난에 행운이 기대어 있고, 행운에 재난이 엮드려 있다는 뜻이다.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들떠 설치지 말고, 실패했을 때도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 없다. 이젠 뷔페식당에서도 배부르게 먹지 말자. 

한 달, 한 권

나를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세계 “아무튼, 시리즈”



진아 작가

고등학생들과 수다 떠는 재미에 학교에 가는 국어교사. 혼자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책 이야기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엄마만으로 완벽했던 날들』, 『쓰다보면 보이는 것들』(공저)를 출간했다.

안녕하세요. 공군 장병 여러분! 월간 『공군』 2월호부터 격월로 ‘한 달, 한 권’ 코너 연재를 맡게 된 작가 진아입니다.

작년 연말에 월간 『공군』에 책 소개를 해줄 수 있냐는 메일을 받았어요. 처음 든 생각은, ‘군인들이 책 읽을 시간이 있냐?’였습니까. 문득 이십 대 때, 막 전역한 친구가 군대에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많은 책을 읽었다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친구는 군대에 있는 동안 “외부와의 단절에서 오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요즘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니, 그때만큼 책 읽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군대라는 공간에서 책에 관심을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짐작했어요. 그러니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책을 잘 골라서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단권이 아니라 시리즈물입니다. 시리즈라고 하면 해리포터 같은 연작소설을 생각하실 테지만, 제가 소개하려는 시리즈는 에세이예요.

바로 “아무튼 시리즈!”입니다. 세 곳의 출판사가 협업하여 출간하는 아무튼 시리즈는 ‘나를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세계. ‘아무튼’은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입니다’라는 소개말처럼,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한 가지에 관한 깊은 이야기예요.

“아무튼, 술”, “아무튼, 비건”, “아무튼, 요가”, “아무튼, 잠”, “아무튼, 술집”, “아무튼, 양말”, “아무튼, 노래”, “아무튼, 인기가요”, “아무튼, 여름”, “아무튼, 연필”, “아무튼, 기타”, “아무튼, 후드티”, “아무튼, 피트니스” 등……. 벌써 40권이 넘는 아무튼 시리즈가 출간됐어요. 누군가는 양말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솟고, 다른 누군가는 한 잔의 맛있는 술로 매우 어려운 날들을 버티며, 또 다른 누군가는 인기가요의 차트를 확인하는 것으로 삶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위로하고, 생의 기쁨을 찾는 이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진솔하고 따스해요.

40여 편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기에, 제가 재밌게 읽은 2편을 골라서 소개하려고 해요. “아무튼, 술”과 “아무튼, 잠”입니다. 술과 잠, 두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생각만 해도 좋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책 제목을 보자마자, 무릎을 쳤거든요! “이거지. 바로! 기쁨이자 즐거움!”



「아무튼, 술」
김환비 지음 | 제철소 펴냄

저는 술을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맑고 깨끗한 소주를 좋아해요. 맥주는 배가 불러서 싫고, 막걸리는 뒤끝이 불편합니다. 와인은 어쩐지 너무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보드카는 너무 독해요. 양주는 맛이 없습니다. 단맛과 쓴맛의 절묘한 조화, 몇 잔만으로도 취기가 도는 소주가 그야말로 저의 취향 저격 술입니다. 사는 게 팍팍하다 못해, 펍펍한 기분이 드는 날이면, 소주 한 잔에 회 한 점, 소주 한 잔에 삼겹살 한 젓가락을 생각합니다. 그럼 ‘그래. 인생 별건가. 이렇게 한 잔 술과 함께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라는 용기가 샘솟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진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술자리도 많이 사라졌고, 이런 이야기에 공감해줄 만한 친구들도 많이 줄었거든요. 술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웬지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술”이라뇨! ‘아, 이걸 정말 내 마음인데?’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술에 얹힌 다양한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얼굴도, 목 소리도 모르는 작가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끼기까지 했어요.



「아무튼, 잠」
장희재 지음 | 제철소 펴냄

저는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 탓에 깊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취업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던 때는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수시로 가위에 눌리기도 했어요. 악몽은 매일 밤 찾아오는 덤이었고요. 그런데도 잠을 하찮게 여겼던 것은 “죽으면 실컷 잘 수 있다”라는 익숙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잠을 줄여서 공부하고 일하는 게 당연시되는 문화 속에서, 잠을 적게 자는 것은 부지런함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무튼, 잠”을 읽으며, 깊이 잘 자고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감각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잠을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에 숨은 폭력성도 확인했고요. “죽은 뒤의 휴식은 잠이 아니다. 다음 날 다시 온전한 나로 돌아오는 걸 잠이라고 한다!”라는 저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생각만 해도 좋은 아무튼!’이 있나요?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어, 힘들고 버거운 시간을 버텨낼 힘이 되어주는 ‘아무튼’이요. 당장 떠오르는 게 없으시다면, 아무튼 시리즈의 수많은 “아무튼!” 중에서 마음에 꼭 드는 “아무튼!”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없다면?! 여러분만의 “아무튼!”을 발견해서, 깊고 진한 이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짝수 월에 만나게 됩니다. 짝수 월에 만난다고 하니, 어쩐지 제가 여러분의 책 짝꿍이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공감과 위로가 전해지는 좋은 책들로 4월에 다시 만나요. :) 

영화로운 나날

「아바타: 물의 길」

앞으로도 다시 없을 압도적인 비주얼의 체험



송희운 마케터

워킹맘으로서 일과 육아 모두 최선을 다하고 싶은 사람. 일과 육아 사이에서도 계간지 『CAST』와 '브런치'에 꾸준히 영화 관련 글을 게재하며 영화에 대한 열정을 이어 나가고 있다.

「아바타」가 개봉한 지 약 13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2편인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했다. 개봉 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아바타: 물의 길」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개봉한 지 무려 10년이나 지난 영화의 속편이 과연 관객들을 열광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우가 무색하게도 영화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약 880만 관객을 돌파했고, 머지않아 2023년 첫 번째 천만 관객 영화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왜 이 작품에 열광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1편이 개봉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

음에도 불구하고, 「아바타」를 뛰어넘어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큼의 비주얼을 선사하는 영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대부분도 CG가 들어가 있지만, 「아바타」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아바타」의 비주얼이 다른 영화들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배우들이 CG 작업을 위해 블루 스크린 앞에서 연기하고 있다는 점은 같지만, 배우들의 외양에서 조금만 바뀐 모습이 되느냐 혹은 아예 다른 모습이 되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아바타」 시리즈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오로지 「아바타」만을 위해 창조된 외양으로 연기를 한다. 1편에서는 제이크 설리라는 캐릭터가 인간과 아바타 사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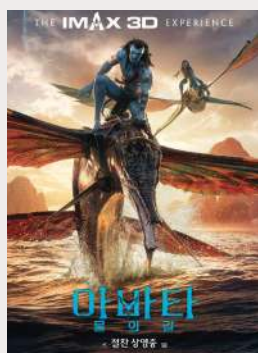
방황하던 존재였기에, 인간과 아바타의 출연 비중이 엇비슷했으나, 2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성된 ‘아바타’와 ‘나비족’의 출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인간들이 등장하기는 하나, 이들은 극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닌 부수적인 존재들로 나온다.

1편에서 이미 판도라 행성의 화려한 비주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었기에, 2편에서 또 다른 압도적인 비주얼을 선보이기 위해 택한 배경은 ‘바다’이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현실감 있는 비주얼을 위해 출연 배우들에게 산소 탱크 없이 물속에서 숨을 참고 촬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 덕분에 나비족들이 판도라 행성의 생명체들과 함께 물속을 자유자재로 헤엄치는 장면은 분명 판타지임에도, 마치 나비족이 실존하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또한, 멧카이나 부족과 바다의 독특한 생명체들은 1편에서의 오마티카야 부족과 숲속 생명체들에 익숙해져 있던 관객들에게 또 다른 시각적인 볼거리를 선사한다.

1편에서 판도라라는 천혜의 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나비족을 학살했던 인간들의 만행은 2편에서도 이어진다. 멧카이나 부족과 영혼으로 교감하는 툰쿤이 인간들의 사냥감이 된다. 바닷속에서 거

대한 몸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며, 나비족과 교감하는 툰쿤들의 존재는 우리의 현실 속 ‘고래’들과 매우 닮아있다. 영화에서 인간들은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툰쿤을 궁지에 몰아넣고 사냥한다. 이들이 툰쿤을 살해하는 이유는 딱 하나, ‘암리타’를 얻기 위해서다. 암리타는 툰쿤의 뇌 속에 아주 적은 양만 있으며, 인간의 노화를 멈춰주는 물질이다. 인간은 툰쿤을 사냥해 암리타를 추출한 뒤 나머지 시체는 바다에 버린다. 이 장면은 우리의 현실과 이어져 인간들의 욕심으로 잔인하게 학살되는 고래들, 즉 포경 산업을 떠오르게 한다.

압도적인 비주얼과 전달하고자 하는 뚜렷한 메시지로 관객들을 매혹한 「아바타: 물의 길」에도 아쉬운 점은 분명 존재한다. 가족 간의 사랑, 외면과 내면이 다른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 영화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집어넣고자 했던 감독의 욕심은 무려 3시간 12분의 상영 시간으로 완성됐다. 그렇기에 다소 산만하며, 영화 중반에는 살짝 지루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그런데도 「아바타: 물의 길」은 영화를 온전히 체험하는 순간 환상적인 비주얼로 강렬한 영화적 체험을 선사해 단점들마저 잊어버리게 만든다. 아바타 시리즈가 다음에는 어떤 충격적인 비주얼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아바타: 물의 길」

시와 비행하다

0.00



강혜빈 작가

뉴노멀이 되고 싶은 양손잡이. 시를 쓰고 찍습니다. 2016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 시 부문으로 등단했으며, 사진가 '파란피'로 활동 중입니다. 문예창작과 불문학을 공부하고, 다수의 문예지 및 잡지에 시와 에세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커다란 구름을 만들듯이, 희미한 빛들이 모여 어두운 귀퉁이를 밝게 비추듯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며 몸을 숨기고 있듯이, 세상에 없던 빛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노트]

시를 함께 쓰는 동료들이 있다. 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일주일에 시 1편 쓰기 챌린지를 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술'이었다. 나는 요즘 알코올과 친하지 않지만 대신 무알코올 맥주를 마신다. 이상하게 정말 맥주를 마실 때처럼 기분이 난다. 알코올 없는 알코올은 결국 무엇일까? 사물과 현상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본다.

2016년 데뷔 이후, '분리수거'라는 팀을 만들었다. '분리수거'는 어느 날, 맥주를 마시다가 결성된 팀이다. 멤버는 2015~2016년 각각 문학과사회로 등단한 임지은, 강혜빈 시인과 창비, 실천문학으로 등단한 한연희, 김은지 시인으로 이루어졌다. 종이처럼 잘 찢어지고 불에 녹은 플라스틱처럼 뭉쳐지곤 하는, 종류별로 나누어서 버린 쓰레기 따위를 거두어가는 분리수거의 물성과도 맞닿아 있다.

당신이 시를 읽으며 끝없이 질문하고 넓어지길 바란다. 시 「0.00」은 분리수거의 관점에서는 '캔'의 물성에 가까울 것이다. 쉽게 찌그러지지만 혼자서 펴지기도 하는,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데일 만큼 차가워지기도 하는, 무언가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간편함과 안전함을 가진, 그런 캔. "아무것도 없지만/무언가 들어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알코올 맥주에는 알코올이 없지만, 다른 성분들로 가득하다. 이는 맥주의 맛을 따라 한 것에 불과할까, 맥주를 넘어서 또 다른 독자적인 음료로 보아야 할까.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대에서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내 안에서 초의 심지와 같은 형상으로 정립되는 게 아닐까. "알코올 없는 어른의 방식/인공지능 연인의 방식/콩고기의 방식"은 모두 오리지널을 재현해내는 방식이다. 뉴노멀이 떠오르고 4차 산업 시대가 열리고, MZ세대를 넘어 '알파 세대'가 오는 지금. 무엇을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0'처럼 비움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갱신해보자. 가볍고, 고요한, 저녁이 있는 미래를 위해.

퇴근이라는 말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거나
돌아온다는 뜻이다

나는 마쳤습니까?

오늘의 절망 여섯 개는
맥주 여섯 캔이 된다

제로 알코올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무언가 들어있어요

뒷면에 작게 쓰인
‘감귤향 첨가’를 읽어내는 눈

은색 캔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산재 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자꾸만 열리는 냉장고의 문을
힘껏 닫아 주었다

기쁨 하나만 빌려 쓴다

비 알코올과 무알코올
아닌 것과 없는 것

맥주 닮은 보리 음료와
인간을 모방하는 기계는
무엇이 다릅니까
알코올 없는 어른의 방식
인공지능 연인의 방식
콩고기의 방식

그런 맥주 따위
이해되지 않는다는 동료의 어깨가
으쓱
으쓱

몰이해를 표현하는
각도와 높이

기쁨의 절반은 유리잔에
나머지는 그대로 캔에
담겨 있다

이상하게 취하는 것 같고
죄책감이 없잖아요

창밖에서 누군가 웃는다
우연적으로

누군가 택배 주인을 찾고
누군가 침을 뱉는다
누군가 주차금지 팻말을 세우고

한 캔, 가벼운 미래
두 캔, 고요한 미래
세 캔, 저녁이 있는 미래

1%와 0%의 차이
단지 한 걸음

멀리서
빙산 녹는 소리
볼링 핀 쓰러지는 소리

성애가 키만큼 자라
얼음 칸을 뒤덮는다

감쪽같이
비웠다

비웠다 

TREND

트 렌 드 가 보 인 다

꼭! 집어주는 슬기로운 공연 관람



출처: 인스타그램(@i_seensee)

연극 「레드」



출처: 국립극단 네이버블로그

연극 「만선」

연극 「레드」와 국립극단의 연극 「만선」

연극 「레드」는 영국 런던의 돈마 웨어하우스 극장에서 2009년에 초연되면서 작품성이 이미 인증된, 남자 주인공 두 사람이 이끌어 가는 2인극이다. 작가는 실존 인물인 추상표현주의 시대의 대표하는 화가 ‘마크 로스코(1903~1970)’와 가상의 인물인 조수 ‘켄’ 일화를 극의 중심에 올려두고, 극적 구성이 가진 촌촌함으로 예술가의 치열한 삶을 쫓는다. 주인공이 예술사조의 변화와 예술성·대중성·상업성의 경계에서 느끼는 깊은 고뇌와 예술의 진실성을 지켜내기 위한 집념을 강한 온도로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 ‘마크 로스코’ 역은 정보석과 30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 유동근이 번갈아 가며 열연한다.

연극 「만선」은 한국 현대 창작희곡을 대표하는 천승세 작가의 작품이자, 우리나라 대표 연극전문 공익단체 국립극단의 레퍼토리이다.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민중의 삶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무대 미학과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한국적 사실주의를 구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가난과 숙명에 저항하는 인물을 통해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데, 특히 무대에 2톤가량의 물을 폭우로 쏟아내는 장면은 압권이다.

연극 「레드」는 오는 2월 19일(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연극 「만선」은 3월 16일(목)부터 4월 9일(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한다.

2022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미궁(迷宮)의 설계자」

「미궁(迷宮)의 설계자」는 극 제목만으로는 미궁이나,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이었던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억할 수 있다. 「남영동1985」 등 다양한 영화의 소재로 쓰일 정도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장소가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극은 이 공간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엮인 가상의 인물 3명의 이야기가 1975년, 1986년, 2020년. 서로 다른 시공간으로 겹쳐지면서 극은 흘러간다. 20세기 한국 현대 건축 대표인 한국 건축 1세대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남영동 대공분실의 실체를 추적하며, 폭압적인 권력으로 쓰러져가는 인간의 존엄과 지식인의 양심에 주목한다.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2022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한 작품 중 하나로, 2월 17일(금)부터 2월 26일(일)까지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연극 「미궁의 설계자」

뮤지컬 「물랑루즈!」와 「베토벤; Beethoven Secret」

데이트로 즐길 화려한 춤과 노래, 군무와 가창력을 선보이는 뮤지컬을 고민한다면, 다음 두 편의 뮤지컬을 추천한다. 뮤지컬 「물랑루즈!」는 지상 최대의 화려한 쇼를 선보이는 1890년대 프랑스 파리의 '물랑루즈' 클럽을 배경으로 한다. 이 작품은 최고의 스타 사틴과 젊은 작곡가 크리스티안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 「물랑루즈(2001)」를 뮤지컬로 각

색해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레이디 가가 '배드 로맨스', 날스 바클리 '크레이지', 아델 '롤링 인 더 딥', 시아 '샹들리에', 비욘세 '싱글 레이디' 등 3개의 대륙에서 160년이 넘는 기간 사랑을 받아온 70여 곡의 음악을 화려한 쇼를 보는 것 같은 분위기로 들을 수 있다. 뮤지컬 「물랑루즈!」는 오는 3월 5일(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한다.



뮤지컬 「물랑루즈!」

뮤지컬 「베토벤」은 콤플렉스로 절망의 삶을 살았던 상처받은 영혼의 소유자 베토벤과 그의 인생에 유일한 운명의 사랑이었던 앤서니(토니) 브렌타노의 이야기를 그려낸 창작 뮤지컬이다. 두 사람의 감동적인 사랑의 서사를 담아낸 뮤지컬이라니, 벌써 뜨거워지지 않는가. 베토벤의 외로운 고독과 절망을 구원한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베토벤 역은 박효신이, 안토니 브렌타노 역은 옥주현이 맡아 열연한다. 뮤지컬 「베토벤」은 3월 26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다.



뮤지컬 「베토벤」

자, 이제 콧 집어주는 슬기로운 공연 핵심정리가 끝났다. 휴가를 나와 볼 만한 공연을 선택했다면, 더 재미있게 공연을 즐기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작품의 간단한 줄거리를 알고 간다. 둘째, 작품을 한 번쯤 상상하거나, 관련 자료들을 검색해본다. 셋째, 공연장소와 정보를 확인하고, 극장 주변의 인기 장소와 맛집을 알고 간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된다면 출발! 즐거운 공연 관람을 기대합니다. 



글쓴이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 연극평론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극, 뮤지컬, 공연 리뷰 등의 글쓰기를 하고 있으며, 국민일보에 '김건표의 연극인 이야기'를 연재 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동시대의 연극 읽기』, 『장면연기 텍스트』, 『연극과 연기의 세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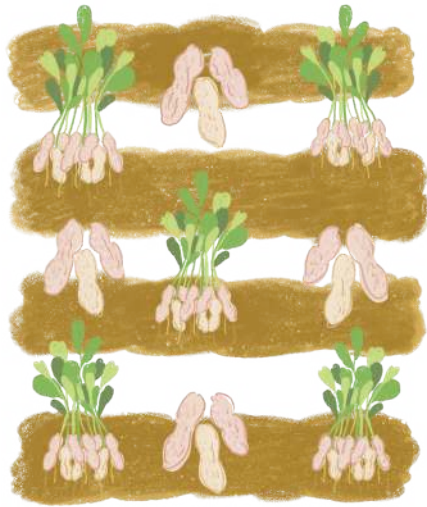
생각하는 그림

살아진 하루에도 찾아온 행운

미국 앨라배마주에 있는 작은 마을,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19세기 이곳 주민들의 주된 수입원은 목화 재배였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멕시코로부터 유입된 목화 벌레가 수분(受粉)을 방해하고, 꽃과 열매까지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목화 수확량은 줄고, 재배지는 황폐해져 주민들은 굶주림과 실직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마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목화 대신 콩, 감자, 옥수수, 땅콩 등의 구황작물을 심었습니다.



주민들은 새로운 작물에 큰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왕 심은 거 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작물 재배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마을의 토양이 땅콩을 재배하는 데 알맞아 엄청난 양의 땅콩을 수확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수확한 땅콩으로 버터를 만들고, 기름도 짚으며, 땅콩을 집중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국 전역으로 목화 벌레가 퍼지고, 나일론 등의 화학섬유가 등장하며 목화산업은 사양산업이 되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 다른 목화 재배 마을들은 큰 위기를 겪어야만 했지만, 유명한 땅콩 생산지라는 명성과 함께 큰 도시로 성장한 엔터프라이즈 마을은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불행으로만 여겼던 일이 엔터프라이즈 마을에 행운을 가져다준 셈입니다.

공군인 여러분! 벌써 2023년 2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연시에 다짐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는 계획대로 살지 못했을 때 불행으로 여기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혹시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지만, 누구든 계획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며, 주어진 일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불행은 행운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군인의 편지

어린 시절, 우리 가족에게 온 어여쁜 축복에게

상병 최진민

안녕 답아, 너에게 편지를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초등학교 4학년 때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 부러워 아버지에게 울고불고 매달려 너를 데리고 왔어. 지금은 너랑 온종일 함께 계시는 어머니이지만, 그때는 널 다시 되돌려보내시진 않을까 내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넌 모를 거야. 정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가, 그렇게까지 성격이 나쁠 수 있었는지.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해보니 넌 정말 성질머리가... 어릴 때부터 씹수가 노릇던 거 같아. 하지만 너의 그 예쁜 얼굴엔 우리가 당해낼 수 없었지. 사실 네가 왔을 때 우리 집 형편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정말 귀신같이 네가 온 이후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이 매우 잘 풀렸다고 말씀하시더라. 어쩌면, 네 덕에 경제 형편이 지금처럼 유복해진 걸 거야. 난 네가 우리 가족처럼 느껴진다. 평생 너랑 함께 있을 줄만 알았고, 내 삶에 네가 없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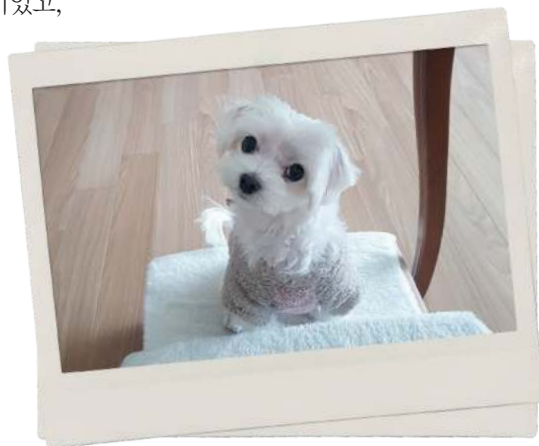
어느덧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11년이나 흘렀는데, 사실 요즘 두려워. 나는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일찍이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직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 네가 제일 좋아하고, 널 제일 예뻐하시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이실 거야. 사실 너에게 제일 고마운 건 우리 어머니께 생기를 가득 불어넣어 줬다는 거야. 어머니께서는 어릴 적부터 외할아버지의 삶에 녹아, 당신의 삶 없이 정말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셨던 것 같아. 항상 똑같은 일만 반복하며 사셨던 거지. 또, 아버지와 큰 형이 어머니께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탓에 어머니께서 심적으로 힘든 시기가 많으셨을 텐데, 그때마다 항상 네가 어머니 곁에 있어 줬지. 내가 군대에 와있으니, 집에 혼자 계실 어머니 곁을 네가 항상 지켜주고 있음이 정말 고맙고, 든든해. 어머니한테 네가 막내아들일 거야.

바쁜 수험생활과 군 생활로 너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함께 할 시간조차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써 본다. 넌 정말 우리에게 가족이었고,

네가 먼저 떠나더라도 남은 우리가 평생 널 기억할 거야.

단지, 답이 네게 바라는 것은 네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것과 함께 보낸 시간을 후회 없는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해줬으면 해. 집에 가면 네가 가장 먼저 달려 나와 반겨주는 게 당연해졌는데, 그런 네가 없다고 생각하니, 이 심정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지면을 빌려본다.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정말로 고맙고, 남은 시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자.

사랑해, 답아!! 🐶



책 읽는 공군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

상병 이태규

입대 후 내게 군인, 군사경찰이라는 첫 직업이 주어졌다. 다사다난했던 1년은 업무 숙달, 사회생활, 자기계발까지 발전을 위해서는 스스로 기획하고, 공부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공부는 시험을 위한 공부뿐이었던 내게,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는 공부는 너무나 버겁게 다가왔다. 그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읽었던 책이 바로 『최재천의 공부』였다.

『최재천의 공부』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와의 대화를 칼럼니스트 안희정이 엮어낸 책이다. 대화를 엮어낸 만큼 주제는 확산하고, 변형되며, 때로는 옆길로 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세대 간 갈등에 대해 논하다가 갑자기 침팬지의 생태로 이어지는 식이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삶과 배움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뻔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잘 정제된 기고문이 아닌 ‘대화’라는 형식이 그 익숙함을 색다르게 느끼게 한다. 날것의 대화 안에서 독자는 문맥과 행간을 주의 깊게 읽어가며, 대화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그 의미를 스스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은 독자가 작가가 정해놓은 답이 아닌, 스스로 생각한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한다. 책의 주된 내용이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기에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책의 취지도 실천하게 된다.

나의 경우 그 과정에서 살피게 된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공부, 인간관계, 삶까지…. 나는 언제나 수동적이었다. 그 이유를 스스로의 게으름으로 탓했다. 그러나 나는 실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부족한 자신감을 가진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책은 최재천 교수의 인생사와 수많은 학계의 일화들을 이야기하며, 나의 두려움을 조금씩 허문다. “떨어

져도 괜찮아. 일단 날아봐! 추락해도 날개는 꺾이지 않으니, 바람이 좋을 때 다시 날면 돼! 오해받아도 괜찮아. 일단 말해봐! 너를 오해하는 사람은 결국 남이 되겠지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벼으로 남을 거야!”

내 안에서 작은 용기가 생겨났다. 작은 용기로 이 책을 읽고 배운 것들을 스스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잘 자고, 먹고, 운동하고, 조금 더 나를 돌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배우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만들고, 읽어낸 책들을 정리하며, 나의 발전을 느끼는 것이 요즘 나의 최고의 즐거움이다.

나는 실천적인 공부로 가는 작은 용기를 이 책에서 얻었지만, 그것은 나만의 답이다. “알면 비로소 사랑한다.”라는 말에서 공부의 기본자세인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용을 찾는 것도, 무슨 일이든 일주일 전에 미리 하는 최재천 교수의 습관을 공부의 계획과 실행의 비결로 삼는 것도, 모두 독자의 선택이다. 이 책은 ‘삶이 곧 배움’이라는 큰 뼈대만 주고, 재료들을 그저 늘어놓을 뿐이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 마음에 배움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나갈지는 모두 당신의 몫이다. 그런 귀찮고 피곤한 작업에 기꺼이 착수하고 싶다면, 이 책은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당신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최재천의 공부』
최재천 · 안희정 | 김영사 펴냄

토닥토닥

내가 산 인생만이 나의 인생이다

우리는 때로 하루하루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망했구나, 틀렸구나, 그런 생각이나 느낌일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어떤 삶도 무의미한 삶은 없다. 실패하거나 이지러진 삶도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내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마이너 없이 메이저 없다’란 것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정말 그러하다. 실패 없는 성공은 무의미한 성공이다. 성공의 진정한 가치를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젊은 시절의 삶은 앞길이 막막하고 발길이 팍팍할 때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병영 안에서 사는 분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그러한 힘든 날들이 앞으로의 자기 삶을 더욱 단단하고도 환하게 열어주는 능력과 가능성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문제는 기다림이고 그리움이고 노력이다. 그리움을 갖고 기다리면서 노력하다 보면 끝내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이 하는 말이니 속는 셈치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 나는 자기가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하여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라. 끝내는 자기 삶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내가 중년 이후 가졌던 삶의 목표요, 방향이었다.

지금 젊은 분들에게엔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기회가 있다. 시간과 건강과 기회도 돈이나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산임을 믿어야 한다. 늙은이가 되어 보면 그것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된다. 지혜란 앞날의 일을 미루어 짐작하고 헤아려 아는 능력을 말한다. 말하자면 늙은 사람 되기 이전에 늙은 사람의 생각을 미리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다. 오늘은 특별한 날. 공군본부 초청으로 신년 북 콘서트에 참여한 날. 행사를 마치고 친절하게 우리 짐까지 차를 내어 데려다주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내가 문득 이런 말을 했다.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아주 잘 갔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 알고 온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것이고 던져진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렇지만 돌아갈 때쯤이면 누구나 그렇게 말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참 잘 왔다 갑니다.”

나는 또 ‘내가 쓴 돈만이 내 돈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여기에 이어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내가 산 인생만이 나의 인생이다.’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하루를 ‘벌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든 내가 살아낸 인생만이 나의 인생인 것이다. 



나태주 시인

마음의 소리

이수복

soobok**@naver.com

2023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월간『공군』 받아봤습니다. 디자인부터 산뜻해서 추운 겨울을 잠시 잊기에 충분했습니다. 2023년에도 월간『공군』이 다양한 공군 소식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달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영공방위를 위해 힘쓰시는 공군 모든 장병과 군무원 분들을 응원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정은

heartsilver**@hanmail.net

아들이 공군에 입대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월간『공군』은 아들을 기다리는 그리움을 달래주는 벗이 됐습니다. 공군의 이모저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글과 사진으로 ‘공군’에 대해 배우고,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멋진 사진과 소개 글을 보고, 유튜브로 영상도 찾아보는 팬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호의 앞표지 ‘연말을 보내는 공군인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양하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조한석

chohans10**@naver.com

새해 첫 시작을 힘차게 깨우는 2023년 1월호도 잘 만났습니다. 특히,〈내 옆의 공군인〉코너의 ‘국제기능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정민 중사’편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전투기를 정비하는 공군 정비사로서 우리나라의 항공기술력을 세계에 널리 펼친 김정민 중사가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럽기만 합니다. 부디 주인공이 지금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노력해 세계 최고의 공군 정비사로 우뚝 서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AF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귀엽고 산뜻한 표지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간『공군』의 변화를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2023년도 공군의 여러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AF

앞으로도 다양한 공군인들의 모습을 담아내어,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좋은 공군’이 되겠습니다. 2023년의 블랙이글스, 그리고 공군의 멋진 모습들을 많이 담아내겠습니다. 공군 장병과 군무원들을 향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AF

〈내 옆의 공군인〉이라는 코너 이름처럼 우리 주변에는 빈틈없는 영공방위를 위해 힘쓰고 있는 공군인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던,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군인을 찾아 생생한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접수
방법

마음의 소리

월간『공군』 홈페이지(www.afzine.co.kr)
〈독자의견〉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공군인의 편지

공백포함 1,250자 내외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E-mail 전송
인트라넷: ekgald123@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올바른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좋은 공군